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광주·전남 기대 크다

주택 기준가 상한 2억원 초반 전망

타지역보다 상대적 혜택 많을 듯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보유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심사 과정에서 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광주·전남지역이 신청 대비 수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

출) 신청건수는 63만 4,875건, 신청금액은 총 73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안심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연 1.85~2.20%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 가능 규모인 20조 원 한도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8,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격 요건 미비자나 본인 의사에 따라 대한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 주택가격 2억 1,000만 원에서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자격 요건 미비나 상환 포기하는 경우가 최대 40%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 8,00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안심대출의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설정될 경우, 이를 통과하는 경남 지역 신청건수는 전체의 9.8%로 구성비가 늘어났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올랐다. 이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자가 많아서 커트라인이 설정되면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 절반 이상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건수 비율은 43.2%인데 주택가격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대상비율이 55.7%로 올라간다.

이와 반대로 전국 평균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커트라인 설정 시 구성비가 반감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지역 신청건수 비중은 전체의

14.2%로, 주택가격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신청자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이에 도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2억 1,0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임모(43·광주시 광산구) 씨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연락이 왔다.”

관련 서류만 통과되면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맞지 않거나, 상환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서미애 기자



중기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회의

중기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

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자 중 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 감면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 제재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갑은 손해 안 봐”...공정위, 아웃렛 임대료 실태조사

“경기 좋을 땐 매출 비례...나쁠 땐 고정 임대료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렛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의 ‘갑질’ 입점 임대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내도록 복합쇼핑몰이 손해를 보지 않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지 조사의 핵심이다.

7일 국회 정부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

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연매출액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결국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확인된 곳은 신세계 [004170] 계열인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와 프리미엄아웃렛(신세계사이먼)으로, 작년 기준으로 총 1,463개 매장에 달한다. /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계약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위법 사항인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11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웃렛은 상생은 뒷전인 채 입차인에 대한 갑질 계약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매도 개인 비중 아직 1% 수준 금융당국 접근성 강화 ‘공염불’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 정책에도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줬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2,800억원(1.03%)에 그쳤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0.95%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은 상태에서 머물렀다.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줬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들의 외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1건 중 94건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의해서 저러졌다.

국민은행, 손바닥 정맥 인증 ‘손으로 출금’ 서비스 확대 시행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손바닥 정맥 정보를 장구애 한 번 등록하면 통장, 도장, 비밀번호 없이 빈손으로 출금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50개 영업점을 시작으로 6개월간 총 284개 영업점에서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총 5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해 장구예금지급 3만2,000여건, 현금입출금기(ATM) 바이오통출금 1만 9,000여건이 처리됐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외화예금, 펀드, 신탁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품의 출금·송금·해약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 발급 등 46개 거래도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가오슝 정기노선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대만 제2의 도시인 가오슝 노선을 정기 운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부터 A321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운항하고 있는 인천~가오슝 부정기편을 동계 여객 일정이 적용되는 27일부터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일본 노선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다변화 자원”이라며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선택지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은 좁고 긴 석호 어구에 발달한 무역항구 도시로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인천~가오슝 정기 취항을 기념해, 다음달 15일까지 글로벌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k)과 함께 여행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만 액티비티 상품의 경우 12% 즉시 할인이 적용되며, 그 외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액티비티 상품의 경우 10% 즉시 할인이 제공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포르투갈 리스본(10월)과 호주 멜버른, 이집트 카이로(12월)에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부정기 직항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에어서울, LCC 최초 기내서 영화 상영

에어서울이 LCC 최초로 기내 모니터를 통한 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오는 10월 10일부터 기내에서 인기 영화 등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하늘 위 영화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화 등 기내 영상물 서비스는 LCC 중 에어서울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앞으로 에어서울 탑승객들은 좌석마다 설치돼 있는 기내 개별 모니터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 광 등 중거리 노선에서 에어서울이 엄선한 인기 영화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노선에서도 코믹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LCC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이번 영화 상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중거리 노선 비중 확대에 맞춰 향후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스포츠 등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제네시스는 G70에서부터 G90까지 제네시스의 전 라인업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내년 5월 초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네시스 제공

‘제네시스 스펙트럼’ 연장 운영

월 149만원에 제네시스 전 모델 경험

제네시스의 전 라인업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제네시스 스펙트럼’이 내년 5월 초까지 연장 운영된다.

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제네시스가 중소렌터카 회사들과 손잡고 출시한 월 구독형 프로그램이다.

구독형 프로그램은 계약기간 동안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월 구독료에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 기본 정비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국내 최초 자동차 구독형 프로그램으로 매월 149만원(부가세 포함)의 구독료를 내면 G70과 G80, G80스포츠 3개 모델 중에서 매월 최대 2회씩 바꿀 수 있다.

또 3개 모델 외에도 제네시스 플래그십 모델 ‘G90’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

료 시승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지난해 12월 런칭 이후 2개월 만에 프로그램 정원을 달성하고 누적 가입 회원이 1,300명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제네시스는 구독형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대기 고객들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운영 기간을 7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연장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제네시스의 다양한 차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제네시스 스펙트럼 고객센터(1522-4205) 또는 제네시스 웹사이트(www.genesis.com)를 통해 가능하다. /김용현 기자